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군산시, 호우경보 발효... 저지대·산사태 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군산시는 11일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시에 따르면 오전 8시 10분 호우경보 이후 11시까지 산단의 경우 최고 150mm의 강우량을 보여 일부 도로와 농경지 등이 침수 현상을 보였다.



별이고 CCTV를 활용해 재해 우려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시 철저한 현장확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도 남북로 사거리, 내운봉 상습 침수지역을 현장 점검했다. 황부시장은 "폭우로 도로침수 등 주민 신고가 많다"며 "산사태, 농수로 저지대 침수 등 위험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외출 자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이에 시는 16개 협업부서·관과 읍면동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건설과·하수과 등 전직원을 동원하여 도로변 맨홀 퇴수작업 등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또 비상 2단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 및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사전 예찰 활동을

정헌을 익산시장 "인명·재산 피해 예방 최우선"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정헌을 익산시장이 도내 집중호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경보 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택림 부시장을 포함해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인명 및 재

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배수펌프장·수문 등 시설물 사전 점검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저지대 및 고립 예상지 주민 대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농작물 침수 및 낙과 피해 예방 활동 등을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복

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하반기 300대 보급

익산시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100대 총 30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인·기관 지원 시에는 일반(개인)에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원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2백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해 지방 보조금 1천만원을 5대 한정 추가 지원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세대 당 1대, 법인

또는 단체 당 1대까지 지원가능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8일부터 지원 가능 확인과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기초연금 및 장

여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관련하여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타 시·도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안내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또는 익산시 환경정책과(☎ 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올해 7월말 현재 익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는 1천7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향 익산愛 콘서트'

익산시 홍보대사 가수 최향, 데뷔 후 첫 단독 공연

익산 출신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최향이 데뷔 후 첫 단독 공연을 고향에서 갖는다. 최향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최향 익산愛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22 익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고향에서 갖는 첫 단독 콘서트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전한다. 이번 공연에서 가수 최향은 '익산愛', '봄송아 꽃물', '우리 어머니', '물레야', '오동도 동백꽃처럼', '브로트 메들리' 등 다양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첫 싱글 앨범에 수록된 '익산愛(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우리네 어머니의 등 같은 고향을 표현한 가사가 특징이다. 최향의 부모님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 익산을 배경으로 제작해 유독 애착을 느끼는 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민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최향의 독특한 음색에 더욱 깊이진 감성과 섬세하고 시원한 고음을 현장에서 생생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가수 신승태와 재하가 특별 출연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고 관람료는 3만원(익산예술의전당 회원 20% 할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59-3254로 하면 된다. 한편 최향은 오디션 프로그램 'KBS 트롯 전국체전'과 '트롯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했고 원광여중과 이리여고를 졸업한 최향은 지난해 7월에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노인일자리 우수 기관' 인센티브 확보

안정적인 노후 기반과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익산형 노인일자리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주관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4년 연속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을 배출했다. 이번 평가는 노인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힘쓴 전국 노인일자리수행기관 12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중 182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유형·등급에 인센티브를 각 기관에 지급한다. 시는 관내 4개소가 우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총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수상 내역으로는 △복수유형(공익형,사회서비스형)분야에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회장 류창현)이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 분야에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기관장 신아원) △공익형 분야에서 전북익산시니어클럽(기관장 백종환)

이 각각 500만원의 성과금을 확보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해 총 95개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해 총 7,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제공했다. 이는 익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70%에 달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익산형 노인일자리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온 결과 4년연속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을 배출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르신들의 양적, 질적인 노인일자리 향상을 위해 수행기관과 지자체가 즉각적인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정적 참여, 이를 이끄는 수행기관들의 사업발굴과 업무추진 능력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친환경 사업 활성화 총력

군산시가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이란, 텀블러 이용고객에게 음료 할인을 제공하는 카페를 모집해 보상(종량제봉투)을 지원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지급기준이 높아 소형카페 등 다양한 업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당초 300원의 할인액(사업자)을 200원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연 5회까지의 보상품 지급한도 역시 폐지했다. 또 5잔이상 30매, 20잔이상 50매 제공 등으로 지급기준을 차등화 및 완화시켰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선발완료

군산시는 '제1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선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및 백신접종 등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등과 소통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지속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지난 7월 28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를 통해 13명을 심사했으며,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불참한 6명은 지난 9일 2차 심의를 거쳐 심사완료했다.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등 총 12개 국가 출신 19명이 선발됐으며, 명예통장은 앞으로 시와 외국인 주민과의 가교 및 대표 역할을 맡아 외국인 관련 행정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거나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